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로 완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청교회사무특별시 강갑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ŒNG HYUN 발행인: 김장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세상을 버리는 결단의 시간

2001년 첫 번째 세례식(다음 주일 찬양예배시, 본당에서)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2월 18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교요 (김인식 목사)	교육관 407호	세례관? (김병태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관? (이홍성 목사)	교육관 314호
2월 25일 (주일)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강소	문답	교구별 강소	유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2월 25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지체 찬양예배, 본당)				

이름을 주시는 것을 이해한다면, 세례가 얼마나 충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있는지를 이해할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한다는 것이며, 그분은 자신의 의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 그것은 그분의 영광을 나누는 의미이다. 세례로 표시되는 그리스도와 연합은 우리의 주님 이신 그분께 바쳐지기 위하여 우리의 죄, 세상, 육신과 마음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E. 클라우니의 '교회' 중에서)

기독교 진리와 종교적 이념의 차이

미주리 주(州)에 있는 세인트루이스 에덴신학교의 교수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서 살렸다는 진술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신앙의 표현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예수에 대한 초대교회의 사도적 신앙을 역사적 사건이 아닌 종교적 이념으로 변질시키려는 하나의 본보기일 뿐이다. 기독교의 진리란 예수 그분 자체를 믿는 것이다.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과 창조와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고난과 죽음과 사흘간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색과 철학 그리고 종교성을 부속임으로 만들어낸 세속의 모든 종교는 천국을 향하려는 영적인 도덕들이다.

오늘날 뿐 아니라 과거에도 기독교의 역사적 진리를 세속적 이념으로 변질시키려 했던 마귀의 음모는 늘 존재했다. 마귀는 온혜와 생명대신 그럴듯한 종교적 이념과 사상의 숲으로 인간의 영혼을 유인했다. 그리고 이 허망한 인본주의의 숲에서 마음껏 유전하며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곤 했다. 달리 말하자면, 거짓의 아버지는 예수와의 뜨거운 인격적 만남과 그의 생애에 연합함으로써 거듭나는 신비롭고 영적인 개인의 역사적 사건을 소홀히 여기게 만들었고, 성령의 통치와 그가 베푸시는 경이로운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대신에 인간의 자율적이고 외지적인 종교적 행위를 통해 천국을 소유하려고 속였으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에베를 윤리와 도덕으로 바꾸어버렸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속의 잣대로 판단하게 만들었다. 세속에 눈은 이따금 하와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든 마침내 교회로 하여금 천국의 보좌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곤 하였다.

결국 마귀는 기독교 진리를 세속의 종교적 이념과 동일한 위치에 놓이도록 만드는데 성공하고 있다. 수많은 젊은이들과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는 실제적인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속, 거듭나고 생명의 열매, 그리고 죽음과 부활 대신에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념적인 신앙을 추구하게 한다. 그럴 때마다 마귀는 미소를 머금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진리의 꽃 대신에 생명 없는 조화(彫花)를 선물로 주었다. 이것은 교회를 몰락한 시련 속에 던져 넣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 교회를 필박하면 할수록 교회는 순교의 불꽃을 불리며 예수처럼 십자가에서 당당히 죽어 가는 이들을 탄생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세속적 종교와 윤리적 인본주의에 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하였고, 인간의 죄와 용서, 그리고 영생의 계를 가르치셨다. 그는 세속의 방식과 결정이 아니라 스스로 행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셨다. 그분은 처음부터 스스로 깨닫지 못하셨다. 그러므로 기독교 진리는 절대로 세속의 이념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오히려 언제나 세속을 거스리며, 언제나 스스로 높아지려는 죄악된 인간의 교만함을 여지없이 허무는 강한 겸(謙)이 될 뿐이다.

제2교육관 코이노니아홀(1층) 주중 개방

초대교회 성도들의 개인적인 모임은 어떠했을까? 성경은 즉시로 이렇게 진언한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행 2:42). 분명히 그들은 모든 모임 때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억했다. 그래서 그들의 만남에는 필박과 고난을 이기는 진정한 샬롬(shalom; peace)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채워졌으리라!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충현의 성도들 모두가 주중에 또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포근한 장소가 마련되었다. 제2교육관 1층 코이노니아홀을 주중 중에도 개방하여 각종 모임 및 친교의 장소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운영실무자를 배치하여 간단한 음료를 유료로 제공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주일은 개방하지 않고 종전처럼 대·체교 교육공간으로 사용함). 이곳을 사용하는 모든 이들은 스스로 야끼고 사용한 곳은 깨끗이 정리해 주길 바란다.

주중에도 개방될 코이노니아홀의 운영에 대한 결과는 이곳을 사용하는 이들의 몫이 될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만남처럼 이들을 찾는 이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누어지길 기대해본다. 한 걸음 나아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함을 격려함으로써(히 10:24), 이곳에서 뜻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배우고 주의 은혜를 나누는 가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되어지는 모습도 꿈꾸어 본다.

2001학년도 충현경로대학 1학기 개강 주예수와 그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7-8).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생의 황혼을 걷는 이들에게 참된 유망의 길을 밝힌가 개 한다. 왜냐하면 비록 그의 육체는 쇠잔하여도 오히려 그의 영혼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의의 면류관 때문이다. 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주를 위해 살려온 모든 것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베푸신 천국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뿐 아니라 그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베푸실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노년의 시기를 지나가는 모든 분들에게는 충현경로대학의 문을 두드리 주시길 바란다. 자세한 사항은 8편의 광고판을 참조해 주시길 바란다.

신학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인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능동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라고 고백한다. "하늘에 오르사"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이 말로 구원 받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가르쳐 주는 것을 알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한다. 바울 사도는 엡 2:6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하루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니하에) 온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여기서 "함께"라는 말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은 구원 받은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들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심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승천의 중요성이 있고 그가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하늘에 앉아있는 것으로 성령이 말하는 것이다.

그러다면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예수님은 승천하시어 우리를 위한 천사를 만드신다(요 14:1-3).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롬 8:34). 예수님은 요 14:12에서 "내가 진리로 진리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승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증거에 확신하게 도우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막 16:19-20).

이준경(목사, 9교구지도)

Does the Word have a place in you?

(John 8:37)

**I know you are Abraham's descendants. Yet you are ready to kill me,
because you have no room for my word.**

In today's message Jesus affirms that the Jews are a chosen people, "I know that you are Abraham's descendants". He also defines what that means by implying that if the people in front of Him are really abraham's descendants then they should expect Him, but Jesus tells them, "yet you seek to kill Me". Why? The reason Jesus gives them is "because My word has no place in you". Indeed, where the Word of Jesus should immediately be received, it is often rejected. The Jews were Abraham's seed, but they didn't have Abraham's faith. Jesus knows where His Word is received and where it has no place. He declares that all else is of no help! It was in vain that they were of the favored race if they did not admit the Savior's Word into their hearts. The practical result appeared in their lives—they sought to kill Jesus.

What place should the Word have in people's heart? The Word comes from Jesus, the appointed messenger of God. It is true and saving! As such, it must have first place among those who hear it. On the inside, it should obtain and retain our thoughts, memory, conscience, and affections, "Your word I have treasured in my heart, That I may not sin against You" (Ps. 119:11). Listen to how Jeremiah puts it, "Your words were found and I ate them, And Your words became for me a joy and the delight of my heart; For I have been called by Your name, O Lord God of hosts" (Jer. 15:16). And Paul tenderly states, "Let the word of Christ richly dwell within you, with all wisdom teaching and admonishing one another with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with thankfulness in your hearts to God"

Your words were found and I ate them,
And Your words became for me a joy
and the delight of my heart;
For I have been called by Your name,
O Lord God of hosts

Open wide the door, and invite it to enter.

It is the Word of the Lord Jesus, your Savior.

It means your highest good and will greatly bless you.

(Col. 3:16).

The Word should obtain and retain a place of honor. It should receive reverence, faith, and obedience. "He who is of God hears the words of God; for this reason you do not hear them, because you are not of God" (Jn. 8:47). Even Jesus reminds us, "Why do you call Me, 'Lord, Lord,' and do not do what I say?" (Lk. 6:46). Think about it. Jesus also says, "Therefore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acts on them, may be compared to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And the rain fell, and the floods came, and the winds blew and slammed against that house; and yet it did not fall, for it had been founded on the rock" (Mt. 7:24-25). Amen!

The Word should also obtain and retain a place of trust. We should in all things rely upon the sure Word of promise. God cannot lie or change (see 1 Sam. 15:29; Tit. 1:2). If you will not be sure, you cannot be secure (see Isa. 7:9). And too, the Word should obtain and retain a place of rule, a place of love, and a

permanent place. The Word of Jesus is the law of all Christians. Your rule will always fail, but His rule will always succeed. It should be prized above our daily food and defended with our lives (see Jude 1:3). It must transform us, so as to abide in us forever.

Why does the Word have no place in many people? Most people are too busy. There's no room for Jesus in their lives. They're too occupied with material things to be saved! For some people it doesn't come as a novelty, therefore they refuse it. They're tired or bored with the old, old story. Are you wearied of bread, air, water, or life? For others, something else occupies the place the Word of Jesus should have. They prefer the word of men, superstition, or skepticism. Tell me, do you think this is a wise preference? And still others think Christ's work is too holy and too spiritual. This fact should startle them for it condemns them! Surprisingly, some people view the Word as a cold comfort, and therefore give it no place. This

reveals their depraved nature because the saints rejoice in it! Moreover, many people today have no place for the Word because they are too wise, too cultured, and too educated to yield themselves to the government of Jesus. "How can you believe, when you receive glory from one another and you do not seek the glory that is from the one and only God" (Jn. 5:44)? These poor people profess to be wise, but they are fools (see Rom. 1:22). Let me ask you, is the reason of your rejection of the Word any of the above? Are you fond of sin? Are you greedy of evil gain? Are you not in earnest? Do you need a change of heart?

What will come of the Word of Christ having no place in you? First, realize that every past rejection of that Word has involved you in sin. Understand that the Word may stop asking you for a place. You may yourself become a violent enemy of that Word, like the Jews in today's message. More importantly, the Word will condemn you at the last great day, "He who rejects Me and does not receive My sayings, has one who judges him; the word I spoke is what will judge him at the last day" (Jn. 12:48).

Let's reason for a moment. Why do you not give place to the Word? All that is asked of you is to give it place! It will bring with it all that you need. Open wide the door, and invite it to enter. It is the Word of the Lord Jesus, your Savior. It means your highest good and will greatly bless you. My dear, dear Choong Hyun congregation, I pray that you have not only given the word place in your lives, but that you have given it first place. I hope the Word of Life is in you eternally. Amen. 



김성관 목사

너희 안에는 말씀이 거할 곳이 있느냐?

(요 8:37)

“나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유대인을 선택된 사람이라고 단언 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또한 예수께서는, 만일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그들은 자신을 기대하게 될 것이라는 잠재된 의미도 정의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이유를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으나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 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이 거할 곳은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거절에 대해 달리 도와 줄 수 없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구세주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우수한 종족이라는 자만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결과로 예수를 죽이기 위해 갖은 음모를 꾸미는 그들의 삶에서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거하는 곳 - 마음의 첫 자리

그러면 사람의 어떤 마음 안에 말씀이 거할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설교자로 지명되어진 예수께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진리하며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을 청자리에 두는 자들(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서 말씀은 획득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기억과 양심과 감정에 보편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 119:11).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어떻게 임했는지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요!”(렘 15:16). 바울은 부드럽게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첫자리에 두고 경외하는 자의 마음과

진실한 자와 주의 다스리심과 사랑,

그리고 영원을 소유한 자들의 마음에

거하고 간직될 것입니다.

련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골 3:16).

말씀이 거하는 곳 - 경외하는 마음

말씀은 그것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에 거하고 간직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말씀을 존경과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요 8:47).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어 주어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눅 6:46)라고 상기시키십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마 7:24-25). 아멘!

말씀이 거하는 곳 - 진실한 마음

말씀은 또한 진실한 자의 마음에 거하고 간직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변할 수 없습니다(삼상 15:29, 단 1:2).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없게 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사 7:9).

말씀이 거하는 곳 - 주의 사랑과 영생을 얻은 영혼

또한 말씀은 주의 다스리심과 사랑, 그리고 영원을 소유한 자의 마음에 거하고 간직될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법입니다. 여러분의 통치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다스리심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데 높은 가치입니다(요 1:3). 예수의 말씀은 틀림없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며, 영원히 우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이유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 안에서 왜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너무나 바빠서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예수를 위한 마음의 방이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너무나 물질적인 것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영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아주 오래된 허구적 이야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주해하거나 피곤해 합니다. 여러분은 행과 공의, 물 또는 생명에 대해 따분해 하시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이 거해야 할 곳에 어떤 다른 것들을 채워 놓고 그것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인간들의 말과 미신, 또는 회의적인 무신론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역은 너무나 거룩하고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비난하는 자들을 감작 놀라게 할 것입니다. 놀라게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병행한 위로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할 곳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타락한 본성을 드러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그 타락한 본성을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요 5:44)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은 현명하게 되기를 구하지만 어리석음을 뿐입니다(롬 1:22). 여러분께도 이 외에 말씀을 거부하는 또 다른 더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까? 죄를 좋아하십니까? 탐욕스런 죄악이 있습니까? 진지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변화를 필요로 하시니까?

주의 말씀이 주는 양면성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스스로 과거에 말씀을 거절함으로 죄에 빠지게 했던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없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처럼 예수의 말씀에 대해 단호한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은 최후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판단할 것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요 12:48).

잠시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왜 여러분은 말씀이 거할 장소를 내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원하는 모든 일에는 마음을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을 넓게 열고 여러분의 구세주, 주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초청하십시오. 그것은 최고의 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크게 축복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중생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의 한 구석이 아닌 첫자리에 모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삶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

‘꿀로 싸나 인투 파이빈’

(아랍어 새해 인사입니다)

박 수 인 (A국 단기 평신도 선교사)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1년간의 사역을 주님의 축복 가운데 마치고 귀국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E성경학교는 지난 12월15일, 9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두 번째 졸업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준비도 미비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겨 걱정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며 돕는 손길들을 인도하시어 저희가 준비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의 좋은 결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장소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공회측의 야간학교에서도 장소를 옮겨야만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지난 번 기도회에서라도 말씀 드렸듯이 A국에서 기독교 활동을 위한 장소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E성경학교의 장소문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

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기에 목말라하는 많은 학생들이 장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기도해 주신 ‘가브리엘’은 2월3일 토요일 저녁에 고통없는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이번 1월의 료팀이 왔을 때 매일 ‘가브리엘’을 방문하여 간호하고 처방받았던 이미 너무 약화되고 몸이 쇠약해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정확한 병명이라든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지금은 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우리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으리라 믿기에 감사 드릴 수 있습니다.

A국인란 곳이 외국인의 선교활동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의 선교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는 자가 아닌 물을 주는 자로서의 역할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이 더 커져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 무슬림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저의 삶을 조금씩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복음의 참 뜻을 전하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신앙들이 무너지고 참 진리의 소망과 생명을 갖

게 되리라 믿으며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갈 6:9)

A국은 아직도 많은 지인과 기도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여전히 남부와 북부인들이 서로를 향해 충을 겨누며 미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기독교인들은 하나 되기를 거부하며 독립을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남부인들은, 특히 기독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깨닫고 북부 무슬림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년 동안 많은 실수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A국으로 떠나기 전 그 동안 받은 많은 사랑의 빛을 A국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했었는데 그곳에서도 또한 넘치는 사랑의 빛을 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많은 사랑의 빛을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서 나누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선교 기도회

일시: 27일(화) 18:30

장소: 만나홀

대상: 선교위원, 실행위원, 외선부교사,

단기선교 참가자, 선교관신자

13기 LMTC(총회선교후원회) 개강예배

일시: 3월 3일 (수) 장소: 베다니홀

등록비: 5만 원

대상: 2001년 여름, 겨울 단기선교 지방자들은 필히 참석해야 함 (6개국·방글라데시, 몽골, 스리랑카, 아프리카, 우즈베크, 인도)

제3기 1년 단기 평신도 선교사 모집

모집기간: 수시 모집대상: LMTC 수료자

제출서류: 봉사부서장 추천서, 교구장 추천서

지역국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전도 지식강좌 ②

1. 전도에 대한 오해
2. 복음의 정의와 전도의 필연성
3. 전도의 내용 (2)
4. 결신의 의미와 내용
5. 전도의 실제적인 문제
6. 전도시 반대 질문에 대한 답변

이제 마지막으로 2주에 걸쳐서 전도전자 전도현장에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질문들을 10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다루고자 한다.

1)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저는 사람이 없이 건물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를 비롯한 우주도 지으신 분이 계시지 않고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창 1:1, 히 11:3).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나무의 색깔이 초록색이라고 가르쳐 주어도 초록색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소경이 눈을 뜰 때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물과 성령으

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이 많습니까?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게된다면 왜 이 세상은 부조리와 불합리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일은 누구든지 한 번쯤은 던져보게 되는 질문입니다. 천생명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는 가정에 어머니께서 아이들에게 좋은 장난감을 사주면서, ‘망가뜨리지 말고 사이좋게 잘 가지고 놀아라’고 하셨는데 서로 장난감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장난감이 모두 망가지고 말았습니까. 누구의 잘못일까요? 물론 그 아이들의 잘못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맡기시면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세상에는 끊임없는 부조리와 불합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3) 기독교만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단이 아닌가요?

기독교는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파하는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근본이 인간으로부터 나왔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산을 할 때에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다양하며, 또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에도 여러 길과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인간이 하

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나의 육신의 어머니가 한 분이라고 할 때에 독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진리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유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4) 종교를 바꾸면 가정에 우환이 생긴다는 말은 사실인가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먼저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선생님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이사를 갈 때에도 꼭 날을 받아서 가야만 했고, 결혼식과 같은 가정의 대소사 때나,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꼭 불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시며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문제가 해결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그분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기에 선생님께서 고민하시는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한 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고후 5:17). 또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요 1:12) 누구든지 나를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십니다.

(정 현민 목사·전도위원회 지도)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김민국 (청년1부, 74동기)



14년 정도가 흘렀다. 나에게 그들과 같은 시절이 있은 후로 말이다. 그들은 아직 채 자라지 못한, 아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하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다. '심자'와 '구원', '예수'와 '복음'... 나에게 어떠한 감격과 가슴 찡찡함을 느끼지 못하게 했던 단어들이었음에도 그 때의 그 추억들이 내 마음 한 구석에 다시 살아 숨쉬는 건 아마도 그들 앞에 내가 서있기 때문은 아닌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한없이 재갈거리는 그들의 입방아가 내 귓전에 맴도는 듯 하다.

어린 시절 교회문턱을 드나들며 쌓아온 내 신앙의 경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 과정 속에서 항상 동일하게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볼 때면 여전히 감사하네...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심정 또한 그러하리라.

나는 지금 중등1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서무'라는 자리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 매 주 그 자리에 설 때마다 나에게는 해야 할 여러 가지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의 나에게는 처음 중등1부 교사실에 발을 디딜 때의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내가 그 곳에서 뛰어야만 하고, 땀을 흘려야만 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다.

2주 전에 중등1부 겨울수련회가 출현기도원에서 2박 3일 동안 있었다. 수련회를 앞두고 교사로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은 그리 만만한 것들이 아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점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사랑을 쫓아가며 홀린 땀방울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한다. 그들이 훗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의식있는 그리스도인이기를 소망하기 때

문이다. 수련회의 2박 3일 동안 그들에게 어떤 뚜렷한 심적 변화가 일어났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복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커가는 아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또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느낄 수 있는 귀한 수련회였다. 아직 때를 지 않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 속에 언젠가는 자리할 그 무언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을 소망해 본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올 한 해 주님께서 나에게 만겨주시는 사명이기도 하다. 내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나중에 그들이 적어도 지금의 내 나이쯤 되었을 때, 그 때를 회상하며 그 시간들이 참 귀했노라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모태신앙이지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건 대학교 2학년 봄쯤이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주일학교에서 자라는 오랜 시간들을 결코 간과할 수 없었음은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내가 자랐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다. 그리고 주일학교 시절 내가 많은 교사들을 바라보며 자라는 것처럼 또한 그들은 나를 비롯한 많은 교사들을 바라보며 자라나고 있다. 문득 며칠 전 교사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위로는 하나님을, 옆으로는 동료 교사들을 섬기고, 아래로는 학생들을 사랑해야 함이 교사들의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런 귀한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한없이 부족한 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으신대 우리 중등1부 학생들에게 얼마 만큼이라. 나중에 그들이 자라서 실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그들에 의해 견고하게 다져져 있는 이 나라와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 텅텅이 초황초황한 그들의 눈망울 안에 젖어 있는 순수함을 바라 볼 때면 마음이 흐뭇하다.

☆ 만평

글·그림 김병현



기도

안정하 (청년1부, 74동기)

저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계신 그 곳에
저를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으로 인해
저의 곤고함이 뱀파되도록
뿔뿔이 주소서.

저의 약함이
당신의 강함이라면
저는 늘 그 자리에서
연약한 모습으로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저의 두려운 마음을
읽어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술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면
저의 눈이
당신의 의를 보게 하소서

세상에서 부대끼는
밀려온 싸움으로
제 마음이 강박해지지 않도록
저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당신의 손으로 나를 거두어
당신으로 쉼이 있게 하소서
저 노블을 맞이주소서



예수의 두 모습

최형호 (청년1부, 73동기)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마5:39)"
"노곤으로 재워를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꽃으시라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요2:15)"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언제나 바라보아야 할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이라면... 그런데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두 모습을 가진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따라야 할까요. 정답은 두 가지 다입니다.

무한한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원권 뺨까지 돌려대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당연한 거부감으로 다가오는 주님의 선하신 모습과, 분노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채찍질을 하시며 상인들을 내어 쫓으셨던 주님의 모습! 이 모습을 속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으셨던 주님은 그리하지 않으시고 분노 하심의 모습으로도 다가 오셨습니다. 그 모습에는 단호함이 있었고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해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더럽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칼날 같은 단호함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되치고 계셨습니다. '내게 오는 불이익은 감수하겠으나 하나님의 의를 더럽히는 불의는 감수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접어치고 살아 가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 속에 이러한 주님의 간절한 의뢰와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의 강인한 군사의 모습이 항상 간직되어 지기를 기도 합니다.

간증과 나눔

구역합방 - 12교구 북아일랜드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며



9일 금요일 아침

이제는 가시지가 실던 눈발이 또 한 차례 날렸다. 밤새 내린 눈이 녹아 미끄러운 길을 오느라 구역식구들의 발걸음은 사그락 사그락 조심스럽기만 하다. 구역예배 장소에 먼저 와 계시던 구역장님은 외부도 걸치지 않은 새 꽃목 어귀에 서서 구역식구들을 맞으신다.

예배가 있을 집의 창가에도 오고 있는 식구들을 반기는 얼굴이 보인다.

다섯 사람이 모여 구역예배가 시작되었다.

찬송가 158장에는 구역장님의 설명이 있었다. "이 찬송의 내용은 오늘 구역예배 본문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용을 상고하시면서 찬양드립니다."

이 달부터는 구역예배의 성경공부 내용이 돌아오는 주일설교 내용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제2와 쓸데없는 슬픔, 본문 마가복음 16:9-11 (구역장님, 부지역장 권사님의 공과는 작게 써내려간 글로 백묵하듯 채워져 있다.)

본문말씀의 상고에 들어가면서, 구역식구들은 본문말씀의 배경을 살핀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사울만에 부활하셨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알리려 갔으나, 그들은 슬픔에 빠진 채 마리아의 증거를 믿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본문말씀에 머물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살펴본다. 우선 제자들의 슬픔의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저절로 믿고 있던 그들의 지도자를 상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생명의 부활을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셨다. 제자들은 마리아가 전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기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쓸데없이 슬퍼하고 있는 것이었다.

구역식구들은 본문말씀의 상황에서 나오면서 상고한 내용을 삶에 적용하고,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

리가 영생을 얻었음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큼을 인하여 어떤 고난에도 기뻐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다. 그런데 살면서 사소한 일에 마음과 생각을 붙들려 근심하게 되거나 생각이 그 일에만 쓰여질 때면 어느 새 구원의 기쁨마저 잊게 되는 때가 있다면서,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기념하고 미래에 있을 우리의 부활과 예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며 예수께서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구역식구들의 믿음의 나눔이 있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과 함께 된 소망과 구역식구들의 사랑을 날마다 이뤄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이어졌다.

예배를 마치자 점심 때가 되었다. 또한 번의 간절찬 기도 후, 맛달산인 유부초밥과 고깃국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참석 못한 구역식구들의 소식을 주고 받으며 다음 구역예배 장소로 정하고 집을 나서는 구역식구들.

다음 주에도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뢰하는 12교구 북아일랜드의 구역예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전진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감전성' 성도를 소개합니다



24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생계유지로서 바빠서 그 동안 종교는 생각도 못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교회

를 다니기 시작했고 천정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시는 데, 혼자만 외톨이가 되는 것 같아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큰 딸(김민숙 집사)의 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은 확신에 기쁘고 즐겁다고 합니다.

'오신일♥이진원' 예비부부를 소개합니다



오신일 형제는 모태신앙인으로 대학을 다닐 때 친구의 소개로 이진원 자매를 만나게 되었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마태 사경주 성경암송대회에 있는 날이라 두 분이 성경을 외워오셨는데 이진원 자매가 암송할 때 열심히 응원하는 오신일 형제의 모습이 보기에 좋았답니다.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일터에서

나의 일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노 용 진 (할렐루야 오케스트라 편곡자)

할렐루야! 무엇보다 제가 음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만 생각했던 자에게 예수님은 다가 오셔서 저의 한계와 죄인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때부터 예수님은 저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사랑했던 음악을 포기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음악을 통해 저를 사용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때 저는 "하나님! 이 음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저의 모든 음악활동이 당신만을 찬양하도록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나서 작업을 같이 하게 되는 모든 분들도 아주 신실하신 분들로 만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들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나큰 감동을 받게 하십니다.

소마 트리오의 'Dear God' 찬양 음반 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을 편곡할 때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마치 내가 음악을 편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선을 하나 하나를 만들어 주시는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더 큰 감동의 선율을 주실 때는 눈물도 함께 주십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모든 음악을 만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음악을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내가 만난 내 마음 속에 숨쉬는 주님의 말씀

오 정 희 (집사, 13교구)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저 역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저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했고 꼭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결국 성경을 읽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태 신앙이었지만 믿었던 내 신앙생활에 참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찬송이 넘쳤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솜이 같을 수가! 다윗왕의 고백은 진짜였습니다. 저로서는 처음으로 느껴본 감격이었어요. 그 재미있던 마태복음의 족보이야기도, 밀도깊은 알 수 없는 선지서들도, 레위기기의 제사 이야기까지 어떤 그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향하셨는지! 세리가 머리를 감히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의이로소이다' 하며 가슴을 칠 때 나도 세리가 되었습니다. 소경 바리새요도 겉으로 멀쩡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며 뛰어올 때 저의 마음도 같이 뛰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흐르는 눈물, 눈물, 눈물이 나의 죄를 씻고 나를 소성케하고 나를 강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본심을 아십니까? (제33)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리 강령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그분의 공복히 여기심을 바라는 우리가 어찌 그 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중등2부

Dream N.E.W.S.P.A.P.E.R

19

"겨울수련회" 엮기

dreamdreamdreamdreamdreamdreamdreamdream

도전 -

간만에 선생님과 진행으로 사색한 도전 골든벨은 재미있게 진행되었다. 문제들은 올해 겨울까지가 게임이 사색한 골든벨로만 진행된다.

첫번째 문제는 369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였다. 정답은 0이었다.

두번째 문제는 369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였다. 정답은 0이었다.

세번째 문제는 369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였다. 정답은 0이었다.

네번째 문제는 369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였다. 정답은 0이었다.

다섯번째 문제는 369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였다. 정답은 0이었다.

골든벨 -

골든벨 선생님의 지도로 각자에서 골든벨 골든벨은 재미있게 진행되었다.

골든벨 선생님의 지도로 각자에서 골든벨 골든벨은 재미있게 진행되었다.

골든벨 선생님의 지도로 각자에서 골든벨 골든벨은 재미있게 진행되었다.

골든벨 선생님의 지도로 각자에서 골든벨 골든벨은 재미있게 진행되었다.

골든벨 선생님의 지도로 각자에서 골든벨 골든벨은 재미있게 진행되었다.

골든벨 선생님의 지도로 각자에서 골든벨 골든벨은 재미있게 진행되었다.

은혜로웠던 부흥회

이제껏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여러 가지로 볼 때 부흥회는 우리 중등2부 학생들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꿈을 찾을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만들 사천동 62

만들 날짜: 2001년 1월 31일

(이 글은 수련회 마지막 날인 1월 31일에 있었던 코너인 "우리는 기자"에서 수상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수련회 동안의 일들을 신문처럼 기사를 써서 큰 도화지에 붙여 만든 것의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중등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중등1부 전예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올때 하나님께 지었던 수많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의 하루에도 수천 번이 모자랄 만큼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때 때문에 언제나 불안하고 미안하고, 투쟁을 부르고, 감사할 줄 몰랐고,

하나님, 그런데도 그렇게 따뜻하고 추억한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게 신실 것을 믿지 않고, 오로지 부흥하고 하나님을 버려 버렸습니다. 이렇게 천한 저에게 그렇게 그리고 아끼없이 베풀 수 있는 사랑 가르쳐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소나, 무를 결코 기도 드릴 수 있는 일과, 하나님께 이 세상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코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은 제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만 했지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베풀 수 있는 용기와 사랑 주셨고, 제게 주신 사랑을 언제나 나에게 베풀기는 부족합니다. 마음이 어찌 떠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 저는 이 때까지 제대로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영과, 아바에게 항상 불만 갖고 투쟁했던 것 회개합니다. 억지로가 아닌 순종하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셨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중등1부 오라파

하나님께

수련회를 마치고 감사의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무척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없이 오신 길은 사랑이 저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평소에도, 아바 말씀도 잘 듣지 않아 속상하게 해 드린 것, 친구, 선생님, 동생, 언니를 미워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수련회를 하는 도중에도 장난을 치며 떠돌던 수련회를 마치고 보니 완전한 것은 많지만 많이 변화되었음을 느낍니다. 수련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던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장학과에 들어가서도 더 나쁜 것까지 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전 무척 행복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도전! 골든벨

양방식 선생님의 진행으로 시작된 도전 골든벨은 재미있게 진행되었다. 문제를 푸는 중 가장 재미있는 게임이 나왔는데도 흥미로운 게임들이었다. 첫 번째 게임은 369인데 우리 팀은 어떤 한국의 실수로 골짜기를 했다. 그렇지만 두 번째 게임에서는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서 너무 기뻐했다. 결국 8팀이 우승을 하였다. 정말 재미있었다.

*우리는 쟁!

오임석 선생님의 지도로 각 과에서 준비한 '우리는 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8조를 2조씩 믿음, 소망, 사랑, 충성 조로 나누었다. 믿음은 3조와 5조, 소망은 2조와 6조, 사랑은 1조와 7조, 충성은 4조와 8조로 구성되었다. 첫 게임이었던 풍선 게임을 시작으로 프로그램의 막을 열었다. 각 팀의 응원은 하늘을 찌를 듯. 다음 게임인 양파링을 나무젓가락으로 전달하기는 팀 내의 협동과 단결심을 알아보는 중요한 게임이었다. 그 후 우리는 풍선 불어 터뜨리기, 멀리 보내기 게임으로 흥미를 높였으며 그래서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모두 한 마음으로 즐겁게 참여했다. 풍선 꼬리 잡아 터뜨리기와 줄다리기로 끝났지만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은혜로웠던 부흥회

이종철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여러 가지로 볼 때 부흥회는 우리 중등2부 학생들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꿈을 찾을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느끼점

조장 고혜진: 즐겁지만 막상 하고 나니 졸음도 가시고 즐거웠다.
서기 김선영: 수련회가 색다르고 참 재미있었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
김지영: 줄러서 프로그램 하기가 힘들었다. 그래도 재미있었다.
김현정: 어느 때보다 재미있었던 수련회였고, 다음 여름 수련회도 재미있으면 좋겠다.
백지수: 재미있었고, 눈을 쳐줘 팔이 아파 힘들었다.
현슬기: 재미있었지만 줄러서 힘들었다! 그래도 재미있고 다음에 또 오고 싶다.

나의 그라운드 펀치



일상 속에서

언뜻 사치하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나의 친구들은 대부분이 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오래 전부터 운전면허를 갖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운전면허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나에게 이 '면허증'은 달갑지 않은 골칫거리이다.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여러 방면의 조언과 광고를 확인하느라 어떻게 늦어진 것이라도 자위하긴 하지만 늦어진 것은 늦어진 것이다. 그러던 중, 며칠 전부터 도로연수에 들어갔다. 면허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끝났다고 축하하지만, 나에게 도로연수는 거의 막막한 장애물로 느껴질 뿐이었다. 더군다나 나를 가르치게 된 선생님의 인상 또한 긴장한 나를 압도하였다.

하루 지나고 이틀 뒤던 날, 디더 실체 도로에서 연습하게 되었다. 오후라서인지 지는 해는 나로 하여금 눈도 못개고 햇빛도 없고 양방향의 차를 조차 구별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또, 내가 화회전 할 줄도 도로에서는 댐 공중중인지. 갈수록 긴장의 연속이었다. 언젠가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을 밟아야 하는지, 이놈의 클러치는 내 의지와는 왜 이렇게 따로 노는지... 갑자기 무뎠어 보여 앉아 계시던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라고 조그맣게 이야기 하셨다. 그렇지만 홀트 뒤를 쫓는 나로서는 뒤의 차가 너무 가까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들어가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한 코스를 겨우 두어 줄이면서 나는 내 자리에 있는 브레이크가 나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도 잘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 나보다 먼저 브레이크를 밟아대지? 하며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다.

어제는 몰랐다. 다른 사람들과 점심을 먹으며 어제의 도로연수를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나보다 먼저 브레이크를 밟으며 걱정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그저 잘 길만 가라고 충고해 주시던 선생님이 생각났다.

지금도 내 입가와 마음에 웃음이 돈다. 어제는 몰랐지만, 당시 선생님의 충고와 브레이크 작동은 초보인 나를 위해 배려해준 세심한 마음이라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러해서 우리 주님이 인생 초보인 나를 이렇게 돌봐 주실 텐데... 하며 또다시 나 혼자 웃음을 머금는다. 믿음 없었기만 이런 것이구나... 그저 넘어가던 나의 일상이 새롭게 느껴지는 오후다.

(이종원 기자)

교회소식 / 새가족 소개

일 권

1. 중등3학 거를 수련회
주제: '열광할만 세상을 위하여'
일시: 22일(목)~24(토)
장소: 중순전기교실
2. 학원전도회 수련회
일시: 23일(금)~24(토) 10:00
장소: 중순전기교실
3. 신묘가부 거를 수련회
주제: "우리 가인 가비"
일시: 24일(토)(수)~31(수)
수요2주에해 부들 중합
장소: 중순전기교실
4. 만물일도메스트리 대원 모집
대상: 초보 및 현구 가사
연회차: 이연순 2인(가사645-0434)
5. 가을 4학기 릴레이
일시: 오늘 15:00
장소: 푸른강 75호
6. 가을 5학기 릴레이
일시: 오늘 15:00
장소: 금곡관 201호
7. 가을 7학기 릴레이
일시: 오늘 교구교실
장소: 이현동
8. 가을 9학기 릴레이
일시: 오늘 교구교실
장소: 갈매리촌
9. 가을 10학기 릴레이
일시: 오늘 15:00
장소: 푸른강 75호

모임

- [illegible]

남녀 전도회

1. 비온 3지서 외계서

18. 요한 14지하 밑례호

- [illegible]

장소: 테두라기

- [illegible]

추가출력 광고 안내

주간충천에서는 업무에 지장을 주는 진화를 통한 광고신청과 접수기한이 지난 후의 광고신청을 일절 받지 않기로 하였다. 따라서 주간충천에 광고를 신청할 부서나 성도들은 주일부터 수요일에 배 전까지 사무국에 비치된 주간충천 게재 요청서 에 신청해야 한다.

2001학년도 총현경로대학 1학기 학생 모집

1. 목적 : 연중 교육과정 목표한 것을 위하여 중점 2주 계획으로 한다.
- 가. 1주 계획 : 3.29.6.21(12주)
- 나. 2주 계획 : 8.30~11.15(12주)
2. 교육대상
- 연령 : 만6세 이상인 자로서
- 가. 본교의 성도 중 자원자
- 나. 타교회 성도 중 자원자
- 다. 지역회의 거주하는 주일 중 지원자
3. 수업시간
- 주 1시간 수업 : 매주 목요일(수업은 교회에서 제공)
4. 활동비 : 매학기 1인당 10,000원
5. 제출서류
- 가. 입학서 1통(교육과정 비치) 나. 주일명목록 본 1통
- 다. 반별명목사전지 2통 라. 등록비 : 10,000원
6. 기타 : 제출 기한 : 2001. 12.18 ~ 3.22

2001년도 상반기 정기감사 실시

1. 대상기간: 2000년 결산과 2001년 1월
2. 대상기관: 각 위원회 산하 전 부서
(단, 남서구 진도읍의 진도위원회와 감사부 받고 구, 경찰, 교정, 살인
연, 이문동, 학원 등 특수진도회는 본 감사를 수감함 것)
3. 제출서류
시산표(2000년 결산, 2001년 1월 시산표),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 등 증빙자료, 시제 현금 또는 예금통장(인감 포함)
4. 감사시점기간: 2001. 2월말과 2월 31일 마지막 회계일까지
5. 감사시점서류: 제1회분과 2008 감사위원회실시 (354대)

여성도부 회장단 영성훈련

- 일시: 2001년 2월 22일 17:30 장소: 만나홀, 갈릴리홀
대상: 각 전도회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충현복지관 안내

스포츠 댄스 안내
 시간: 매주 화요일 10:00~11:30
 수강료: 월 4회 2만원(3개월 과정) 개강일: 3월 13일(화)
사물놀이 안내
 시간: 매주 목요일 10:00~11:30
 수강료: 월 4회 2만원(3개월 과정) 개강일: 3월 22일(목)
자율봉사자 모집 안내
 모집대상: 정신지체인에 관심있는 모든 분
 봉사내용: 작업보조, 업무보조, 프로그램 진행보조
 봉사기간: 주 1회, 3시간, 6개월 이상

새 · 가 · 줄 · 을 · 화 · 열 · 한 · 니 · 드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134	양경옥	1	창년2부	화인지(4)	146	박수지	19	창년1부	
135	이영희	1	창년2부	화인지(4)	147	이영희	19	창년1부	강미연(9)
136	전소은	10	부대	김진구(10)	148	이희정	19	창년1부	강은영(8)
137	전진성	10	바울	이건광(7)	149	김기량	19	창년1부	
138	이희하	10	예스21	이건광(7)	150	박은영	19	고등부	한광아(6)
139	전성수	10	창년2부	이건광(7)	151	정재옥	19	대학부	한영희(6)
140	김장근	11	창년1부		152	김태현	19	대학부	
141	김정준	16	창년2부	이해정(15)	153	정성준	19	창년1부	정성철(5)
142	이혜영	16	창년2부	이해정(15)	154	이경노	19	창년1부	이건진(7)
143	김현구	19	고등부		155	국현애	19	창년1부	
144	김윤진	19	대학부		156	박신형	5	베드로	
145	임갑진	19	창년1부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설 · 기 · 는 · 복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 ■ 시무지소 | | ■ 부속 | |
|--------------|--------------|----------------|----------------|
| 김의철
신교리교회 | 조순근
기병교회 | 김은호
성광교회 | 노영현
당포교회 |
| 오국진
교구사무소 | 이광환
교구사무소 | 유인현
신교리교회 | 최대원
봉서교회 |
| 엄필성
신교리교회 | 장도용
봉서교회 | 오정현
교구사무소 | 이훈
천안교회 |
| 남선우
교구사무소 | 사동석
당포교회 | 정운석
교구사무소 | 김영길
천안교회 |
| 문훈구
봉서교회 | 조인재
교구사무소 | 김종구
교구사무소 | 최무길
예배당교회 |
| 김재현
교구사무소 | 이창호
경서교회 | 차신득
경서교회 | 김재명
형성교회 |
| 박성식
봉서교회 | 김재남
경서교회 | 이종식
교구사무소 | 윤성철
기병교회 |
| 이희열
교구사무소 | 박진근
교구사무소 | 김인관
교구사무소 | 이병욱
제1교구사무소 |
| 안동욱
경서교회 | 최희환
교구사무소 | 임무천
제2교구사무소 | 이종섭
천안교회 |
| 최가환
교구사무소 | 이김재
교구사무소 | 전홍욱
교구사무소 | 전홍렬
교구사무소 |
| 이정우
기병교회 | 김단국
안동교회 | 황영일
교구사무소 | 손철
교구사무소 |
| 한승규
교구사무소 | 김영수
경서교회 | 전홍식
교구사무소 | 김한기 |

예배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주요예배	I 오전 9: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헌화, 화양유생제예배)	본 당
	IV 오후 1:00(화양유생제예배)	본 당
	V 오후 3:00 (본문사이드로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1요일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일예배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5월 1일, 2001 충현체육대회를 앞두고 구성된 각 팀에서는 각 팀 단장을 선출함으로써 각 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가고 있다.

각 팀의 단장 및 구성, 색깔은 다음과 같다.

밌음팀 / 적색 / 단장 이종석 장로 / 4.5.8.12교구

* 19교구(젊은이교구)는 당일 진행요원으로 하고,
외선부의 형제자매들은 각 팀으로 나누어 소속하게 된다

특히 급변 재육대회에는 각 팀별 강행렬을 없애는 대신 각 팀별 응원전을 펼치기로 했다. 따라서 각 팀에서는 창의적이고 전체가 함께하는 응원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본부에서는 이를 위해 최대한도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최근 지난 주일에 모인 학교 집행위원회에서는 각 본부장이 지금까지의 현황과 결정된 사항을 설명하고 각 분과 및 각 팀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